

# 한국인은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사용자 수 3배 차이

### 사용시간·실행횟수 등 SNS 앱 1위 인스타 96%증가, 페북 35% 감소 앱사용자 차이 1590만명 최대 격차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사용자·사용시간·실행횟수 모두 페이스북을 누르고 압도적인 SNS 앱 1위를 차지했다.

19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가 발표한 '주요 SNS 앱 월간 사용자 추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앱 사용자는 2019년 2월 1241만 명에서 지난 2월 2430만 명으로 1189만명(96%) 증가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메신저 앱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4위를 차지한 페이스북 앱 사용자는 1295만 명에서 840만 명으로 455만 명(35.1%)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앱 사용자 차이는 159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세대별로 보면 페이스북 앱 사용자는 50대(+1%)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줄었다. 특히 10대(-56.7%)와 20대(-49.6%)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1인당 평균 사용시간과 1인당 평균 실행

횟수도 각각 31%, 51%씩 급격히 감소했다. 짧은 동영상(숏폼) 서비스인 '릴스'가 젊은 연령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다수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했다는 게 와이즈앱 분석이다.

와이즈앱은 "지난 2021년 2월 인스타그램의 숏폼 서비스인 '릴스' 출시 이후 페이스북 10대와 20대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릴스가 도입되자 인스타그램의 사용자와 사용시간 모두 급성장했다. 지난해 12월 1인당 인스타그램 사용시간은 14시간 21분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앱 평균 실행횟수 또한 지난 2월 1인당 574회로 릴스 출시 이후 122% 증가했다.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에 이어 릴스를 출시했지만 와이즈앱은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국내 SNS 앱 시장에서는 숏폼 서비스 기반인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는 국내 SNS 앱 사용시간·실행횟수 점유율 모두 2019년 46%에서 지난달 57%로 과반수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2위였던 네이버(25%→10%)를 누르



숏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은 지난 5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SNS 앱 1위를 차지했다. <클립아트코리아>

고 틱톡(6%→18%)이 2위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특히 틱톡은 1인당 평균 사용시간에서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와이즈앱은 "틱톡은 1인당 평균 실행 횟수가 증가한다면 시장 확장 기회가 더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메신저 앱을 제외하고 한국인

이 가장 많이 사용한 SNS 앱은 인스타그램(2430만 명), 네이버밴드(1874만 명), 네이버카페(938만 명), 페이스북(840만 명), 틱톡(672만 명), X(구 트위터·649만 명), 카카오톡(459만 명), 네이버블로그(437만 명), 다음카페(269만 명), 스퀘드(253만 명) 순이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쏟아 IT 정보

### '갤럭시 A15 LTE'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3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15 LTE'(Galaxy A15 LTE)를 18일 국내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와 50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15 LTE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색상은 블루 블랙, 라이트 블루, 옐로우의 3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31만 9000원이다. 163.9mm(6.5인치)의 디스플레이는 최대 9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 색상과 명암,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비전 부스터' 기능을 탑재했다.

후면에는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가 담겼다. 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이며, 최대 25W의 유선 충전을 지원한다. 또 삼성페이를 지원하며,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로 데이터를 보호해준다.

한편 갤럭시 A15 LTE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모델을 판매된다. 출시에 따라 이날 KT는 제휴 카드를 사용하면 2년간 최대 6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카카오, '매달 기부' 시범 개시

카카오의 사회 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이용자가 후원하고 싶은 분야의 기부 항목과 희망하는 기부 금액을 선택해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매달 기부'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달 기부는 카카오같이가치에 개설되는 모금함을 통해 나눔에 동참하는 기존의 일회성 기부 형태에서 나아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일정 금액을 연속성 있게 후원할 수 있는 정기 결제형 기부 서비스다.

기부 분야는 ▲쓰레기 줄이기(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 ▲도시 속 나무 심기 ▲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 ▲유기 동물 입양문화 정착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각각의 항목에 조성되는 기부금은 생명의숲, 동물권행동 카라, 월드비전 등의 단체를 통해 기부된다. /연합뉴스

### 네이버, 강아지 사진 자랑대회

네이버는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댕댕이'(강아지를 가리키는 인터넷 유행어) 자랑 오픈톡에서 전국 강아지 사진 자랑 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인 사용자가 댕댕이자랑 오픈톡에 반려견 사진·이름을 올리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사용자들의 공감 스티커를 많이 받은 강아지는 오픈톡 상단에 노출된다.

네이버는 24일까지 공감 스티커와 오픈톡 매니저 평가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7마리를 선정해 댕댕이자랑 오픈톡의 배경 화면 모델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사랑스러운 강아지 모델에 투표와 톡으로 응원을 남길 수 있다. /연합뉴스

## 국내 스타트업 10곳, 오픈AI와 협업 '정례화' 기대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지난 14일 국내 스타트업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국내 스타트업 10곳과 협업하기로 하면서 오픈AI와 국내 스타트업의 협업이 정례화될 기미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14일 미국 실리콘밸리 오픈AI 본사에서 'K-스타트업&오픈AI 매칭데이'인 US 행사를 열고 20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픈AI와 협업할 국내 스타트업들을 최종 평가·선발했다고 밝혔다.

14개 후보사 중에서 에이슬립, 클라이윈트, 디케이메디인포, 마리나체인, 넥스트페이먼츠, 나인와트, 런코리안인코리안, 튜링, 와들, 위레이저 등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현재 오픈AI가 해외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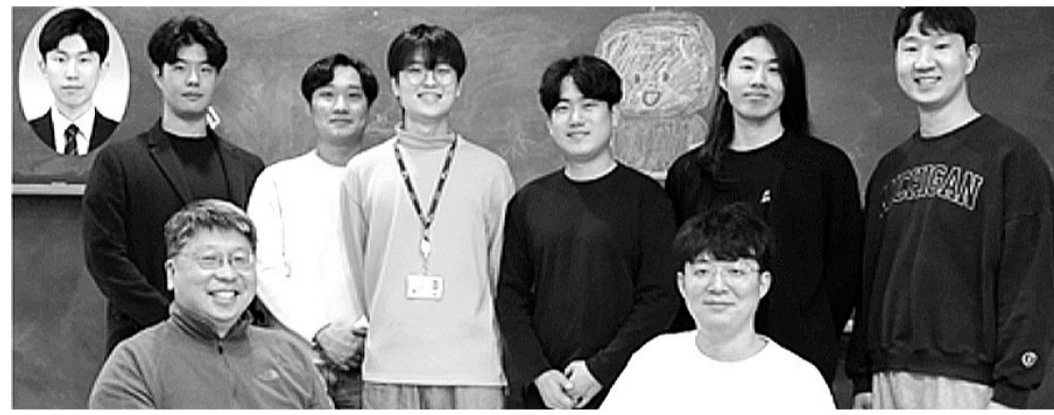
중기부는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들에 사업과 자금 최대 2억 원과, 오픈AI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크레딧,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깜짝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올트먼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들과 10여 분간 차세대 대규모언어 모델(LLM) GPT-5 출시 계획, AI 기술의 미래, AI 칩 생산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날 "우리는 정말로 범용인공지능(AI·인간 수준의 지능을 지닌 AI)을 개발하고 싶다"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문곡, AI가 해결' 주차뺑소니 발생시점 검출



### 광주과기원 이용구 교수팀

주차장에서 '문곡'(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차의 문을 긁거나 찍는 일)을 하고 도랑간 차량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판독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이하 지스트) 이용구(앞줄 왼쪽)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18일 AI 기술로 폐쇄회로 영상에서 이른바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발생 시점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직접 수집한 물피도주 영상 800건을 분석해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학습시켜 차량의 충돌 시점을 검출해냈다. 팀은 데이터셋 수집 비용과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제 자동차가 아닌 RC카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 성과는 물피도주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 전

후로 해당 객체의 움직임과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담당 조사관이 직접 영상 분석을 하는 것에 비해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을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는 CCTV에 적용하면 범죄 예방 및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구 교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방대한 CCTV 영상 분석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상용화를 통해 빠르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JCDE(Journal of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에 지난달 19일 게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